

좌초 위기 ‘고등어 선단 유치’ 재추진

사업자 측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 잠정 중단 상태
최근 계획 일부 변경해 제주도에 사업 허가 재신청
도, 타당성 검토... 어선 유치 규모·운영계획 등 쟁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일명 ‘고등어 선단 유치 사업’으로 불리는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원에 추진되던 사업이다.

당시 개인 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에 민간 수역사업을 허가하는 문제로 인해 공공성·공익성

논란을 빚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후 사업자 측은 공익성·공공성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리마을어촌계, 모슬포수협 등이 참여하는 어업회사법인 케이제주 화순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 허가를 신청한 뒤, 2024년 4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총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고, 화순항 내 1만㎡(약 3000평) 부지

에 선진국형 냉동·냉장 보관 창고를, 인근 부지에는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당시 조건부 허가 내용에는 경제성 및 자금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2025년 4월 사업 조건 이행기한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제주도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규모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선망 및 자금 확보

조건 등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어선 유치 규모, 수산물 처리시설 운영계획, 지역 어업인과의 상생 방안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허가 여부 시점은 미정이지만, 사업허가에 앞서 우선적으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공급 도농기원, 21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8.2t 규모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2t이 제주지역 농가에 공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가보증 원종 씨감자를 18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농산물원종장은 2009년부터 뿌리에 양액을 안개처럼 분무해 기르는 방식인 분무경 수경재배 방식으로, 무병 우량 씨감자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무병 우량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보다 약 20%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내 감자 생산에 적용해 추산할 경우 연간 약 100억원의 농가 조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원종장에서 공급하는 씨감자는 보급종의 상위 단계인 원종으로, 농가에서 최대 4회까지 증식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도내 감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수경재배 씨감자를 1회만 증식해 사용하는 농가는 27.5%로 나타났다. 이에 농산물원종장은 공급 받은 씨감자를 1회 증식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증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모습. 도농기원 제공

더렝이병은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이용해 관리할 수 있으며, 씨감자를 2회 이상 증식해 활용할 경우 종자 구입비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가을감자 파종기에 씨감자가 부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파종 시기와 씨감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온·과습한 조건에서는 씨감자 부패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고온기를 피해 파종 시기를 조절하고, 파종 전 건전한 씨감자를 선별해야 한다.

아울러 종자 처리용으로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등 파종 초기 부패와 병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isi.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모종 정리 분주 18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종묘장에서 직원들이 출하를 앞둔 모종 정리를 작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발담테마공원 총체적 난항 직면”

제주연구원 “실질적 활용도 낮고 지역 소비도 감소”
“전담 관리 인력·예산 없어 현행 체계 개선 불가능”

제주발담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발담테마공원이 조성됐지만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이 없어 한계에 부딪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제주발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담테마공원은 월정리 7600㎡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발담을 비롯해 잔디광장과 정보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발담테마공원이 “총체적 난항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제주연구원은 “발담테마공원이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며 그 근거로 테마공원이 들어선 구좌읍 월정리 관광소비 규모가 줄어든 점, 발담을 주 목적으로 한 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꼽았다.

연구진이 신용카드와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정리의 관광객 소비 규모는 2023년 133억 50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129억5000만원, 지난해 118억

서귀포시, 관광극장 활용방안 시민 의견 듣는다

오늘 시민 공개 간담회
권고안 공유·의견 수렴

서귀포시가 관광극장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추진협의회 의 권고안을 시민과 공유하고 최종대안 수립 위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시는 19일 오후 5시부터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관광극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일환으로 ‘시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과 공유할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관광극장이 지닌 장소적 상징성과 시민들의 추

억을 함께 보전하는 내용이다. 특히 안전을 담보로 본 건물의 정면 파사드는 원형 보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보존이 어려우면 해체 후 복원하고, 내부 공간은 지붕 등을 포함해 전면 재구성한다. 아울러 남아 있는 북측 석축벽체는 9m에 달하는 현무암 돌쌓기 방식의 회소성을 고려해 구조보강을 통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추진협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기획설계를 발주한다. 기획설계 결과물은 향후 진행될 관광극장 공간 재생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로 활용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 매달은 모습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